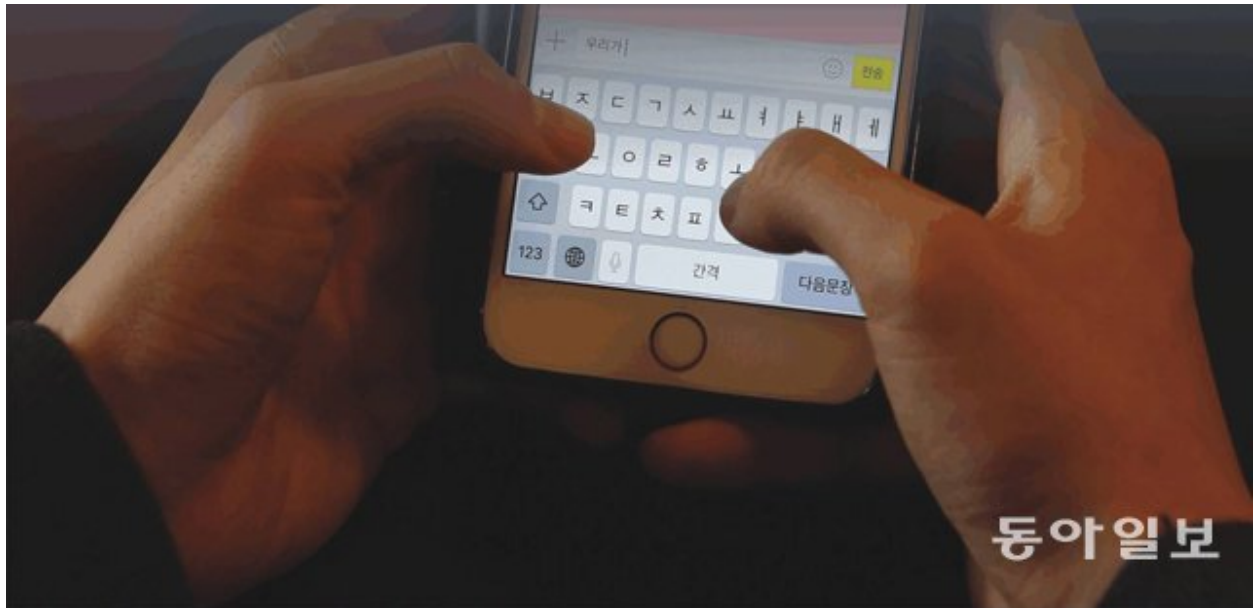


[단독]현직 검사, 성매매 혐의 현장에서 적발...채팅앱 추적한 경찰에 덜미

기사입력 2020-01-23 16:35 최종수정 2020-01-23 17:53



동아일보DB

현직 검사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사 A 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매매 여성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 검사는 22일 오후 7시경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이 건물에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글을 확인하고 이를 추적해 현장을 급습했다. 업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 오피스텔에선 과거에도 오피스텔 성매매가 여러차례 단속됐다”고 한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검사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 A 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네이버 홈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트롯가수 응원은 '트롯픽'에서 / 초대형전광판 혜택 '아이돌픽'!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0&aid=0003266039>
